“어린이 농부가 기른 농산물, 이웃과 나눠요”

노안남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들어보이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학교 텃밭 농산물 활용 기부 문화 확대 협약
나주농업진흥재단·노안남초·어린이복지시설 등 5곳

나주시가 지역 초등학생들이 학교 텃밭에서 기른 농산물로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새로운 먹거리 상생 모델을 구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농업진흥재단, 노안남초등학교, 어린이복지시설(3개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학교텃밭 농산물을 활용한 기부 문화 확대 협약식’을 개최했다.

5개 기관은 학교 텃밭 농산물을 매개로 로컬푸드에 담긴 공익·교육적 가치 확산과 나눔과 기부를 통한 공동체 상생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학교 텃밭 재배기술 교육 및 농산물 공급·기부’, ‘지역 아동의 먹거리 기본권 증진’, ‘건강한 식문화 교육’, ‘로컬푸드를 활용한 공익적 활동’ 등 6개 사항에 대한 상호 지속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나주농업진흥재단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노안남초교 학생들이 직접 기른 가지, 오이고추 등 텃밭 농산물을 매입해 아동복지시설(이화영아원·백민원·금성원)의 식재료로 무상 공급한다.

학생들에게는 텃밭 농산물에 대한 재배 기술과 식문화 교육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농산물 판매 수익금을 이화영아원에 전액 기부할 예정으로 이웃과의 나눔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깨닫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어린 학생들이 농업의 소중함과 참된 상생, 기부문화를 배우고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과 로컬푸드를 매개로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발굴, 확산하는데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참전 유공자 예우 확대…유부인 수당 신설

월 5만원·전입 유공자 즉시 지원도

장성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유부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난 3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월 5만원의 유족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입 유공자가 즉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장성군 1년 이상 거주 기준’을 삭제해 전입자에 대한 참전·보훈명예수당 지급 조건도 완화했다.

하지만 기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유족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미망인이 군을 벗어나 전출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변경된 조례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으며 신청은 참전 유공자 확인원과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겨울 건강 여름에 챙긴다

화순군 드림스타트 ‘동병하치’ 운영

화순군 드림스타트가 다음달 6일까지 삼복에 맞춰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동병하치(冬病夏治)’ 프로그램을 3회 운영한다.

동병하치란 차가운 기운으로 생기는 겨울 질병을 여름에 미리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방 예방치료 요법이며 환절기 이후 비염, 기관지염, 천식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과 식욕부진, 배탈, 장염 등의 소화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폐 기운을 높여 호흡기를 강화하는 삼복첩을 붙이고 맥문동, 오미자, 인삼 등을 달여 만든 약선음료인 생기차를 10회(1일 1회) 복용하는 방식이다.

군은 드림스타트 대상 영유아를 꾸준히 관찰해 땀이 많은 아동과 겨울에 감기가 잘 걸리는 아동 20명을 프로그램 대상으로 정했다.

군 보건소 한방의사가 아동의 건강 상태를 확인 후 삼복첩을 붙여주고 생기차 복용 시 주의사항 등을 아동과 보호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3회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신아에이치에스가 후원한 마스크를 100매씩 제공할 예정이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힐스테이트 화순’ 입주자회, 지오그룹에 감사패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 화순’의 입주가 시작된 가운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근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순군 화순읍 교리에 들어선 ‘힐스테이트 화순’은 지상 30층 규모의 총 604세대로 구성됐으며 지난 15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지오그룹이 시행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다

입주민들은 “5월말 진행된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코로나19 상황에도 공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입주예정일을 준수하고, 공사기간에 보여준 성실한 업무수행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화순 출신인 지오그룹 최일기〈사진 왼쪽〉 회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화순읍에 유치했다. 지오그룹은 현재 신안군 자은도에 2022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라마다프라자 호텔&씨원 리조트’를 건설하는 등 사업분야를 건설에서 문화, 관광, 레저산업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 대나무종보존센터 직원들이 대나무 숲에서 음이온을 측정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 대나무신산업,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선정

2023년까지 15억 투입

담양 대나무신산업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에 선정됐다.

담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균형 뉴딜사업 공모에서 ‘대나무 R&D 기반 구축 및 녹색환경 전환사업’으로 전국 252개 신청 사업 중 전남에서 유일하게 우수 평가를 받아 최종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24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공모에 전국 161개 지자체가 252건의 사업을 제출했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투표, 전문가와 시도대표단 심사를 통해 최종 15개 사업이 선정됐다.

담양군이 제출한 사업은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해 연구개발 신설을 통한 대나무 연구시설과 인력 확충, 기후변화 대응식물로서 다양한 대나무 자원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대나무산업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기후 변화 대응식물인 대나무는 앞으로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을 것”이라며 “담양이 전 세계의 대나무신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